

잡아함 128. 단법경(2)

날짜: 2월 20th, 2025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757>

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. 그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. 그 때에 세존께서는 라다 비구에게 말씀하시었다.

“모든 물질로써,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다 끊을 법이라고 관찰하라. 관찰한 뒤에는 물질에 대해서 욕탐을 끊고 색탐을 끊으면 그는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고 나는 말한다. 느낌·생각·지어감·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.

(이와 같은 것들의 14경도 또한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.)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